

류큐 왕조의 아마미코 신화와 현대 구비전승
Amamiko myths in Ryukyu Dynasty and oral traditions of today

정진희(Jeong Jinhee, 세종대 강사)

국문초록

현재 일본 영토에 속한 오키나와는 오랫동안 류큐 왕국으로서 독자적 역사와 문화를 영위해 왔다. 본고는 오키나와의 독특한 신화 세계의 일단을 살펴보기 위해, ‘아마미코’ 신화에 주목했다. ‘아마미코’는 류큐 왕국의 왕조 신화에 반복적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오늘날의 현대 구비전승 자료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류큐 왕조의 ‘아마미코’는 류큐의 공간 창조자이자 도작 기원자, 그리고 왕조 지배자의 기원이 신성한 권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증하는 장치로 형상화되었음을 지적했다. 도작 기원자로서의 ‘아마미코’는 류큐 왕조의 국가 의례를 통해 민간 전승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론된다. 현재 민간 의례에서 나타나는 도작 기원신 ‘아마미코’의 형상은 그러한 역사적 맥락 아래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현재 구비전승되는 다른 신화 자료들을 염두에 두면, 인류 기원이나 도작 기원자로서의 ‘아마미코’의 면모는 왕조 신화적 형상으로 보인다. ‘아마미코’와는 관계없는 인류 기원 신화와 농경 기원 신화가 별도로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미코’의 성격 특질 중 왕조 기록과 현대 구비전승과의 공통 분모는 그의 ‘창조신’적 면모이다.

현재 구비전승되는 오키나와의 신화는 류큐 왕국과 단절하여 이해할 수 없는바, 왕조의 신화를 고려하면서 현재의 신화를 이해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핵심어: 류큐, 아마미코, 창조신화, 인류기원, 도작기원

1. 序

오키나와는 일본 류슈 지역과 대만 사이의 해역에 길게 뻗어있는 島嶼群으로, 일본의 최남단 현(縣)이다. 현재는 일본 영토에 속해 있지만, 오키나와는 원래 오키나와 섬과 그 주변 섬들을 총칭하는 오키나와 제도 및 그 남단의 미야코제도(宮古諸島), 야에야마제도(八重山諸島)를 지배 영역으로 하는 ‘류큐(琉球)’라는 독립 왕국이었다.

오키나와 본도를 중심으로 발흥한 류큐 왕국은 북쪽의 아마미 제도, 남쪽의 미야코 제도와 야에야마 제도를 통합하면서 독자적 문화를 이루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책봉 체제의 일원이기도 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을 구성하는 일개 縣이 된 것은 1879년의 이른바 ‘류큐 처분’ 이후의 일이다.¹⁾ 현재의 오키나와는 비록 일본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역사와 문화를 일본이라는 범주로 포괄하여 이해해서는 곤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키나와를 비교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국내의 선행 연구는 독립적 정치 체제와 역사를

1) 류큐가 독립적 왕정으로 존재했던 시기는 17세기 초 일본 사츠마의 침략으로 끝났다고 보기도 한다. 사츠마는 1609년 사츠마는 류큐 왕국을 무력으로 침공하여 오키나와 본도 북쪽의 아마미(奄美) 제도를 할양받고, 외교와 내정에 간여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류큐가 독립적 국가로서 중국과 일본 양국에 이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류큐는 여전히 중국에 대해 조공과 책봉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녀온 오키나와의 독자적 특성으로 미루어볼 때 의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이해되던 ‘동아시아’라는 지형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이 하나 더 발견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동일, 김현선, 박종성 등 국문학 연구자들의 오키나와 신화에 대한 관심²⁾ 또한 이런 맥락에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의의와는 별도로 오키나와 신화에 대한 선행 연구의 일부는 재검토해야 할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오키나와 신화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오키나와 현지에서는 ‘미루쿠 유과후’라고 하는 풍요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의 기원을 설명하는 <미루쿠와 샤카(미루과 석가)> 설화가 창세신화로서 한국신화와 비교의 대상이 되거나, 미야코 지역의 대표적 창세 신화를 제쳐두고 지극히 예외적인 채록 사례를 그 지역의 대표적 창세신화로 보고 연구하는 경우가 있다.³⁾ 이는 비교 연구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었어야 할 비교 대상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충실치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오키나와 신화를 비교항으로 하는 현단계 비교 연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요컨대, 본격적 비교에 앞서 비교 대상이 될 오키나와 신화의 전승 양상에 대한 전반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료의 섭렵은 물론, 그러한 자료가 형성·전승되는 배경에 대한 역사·문화적 고찰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본격적 비교의 선행 작업으로서 오키나와 신화의 전승 양상 및 그 배경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오키나와에서 ‘류큐 개벽신’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아마미코’ 신화에 한정하여 살필 것이다. 오키나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류큐 왕국의 역사와 문화를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 ‘아마미코’는 류큐 왕국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류큐 왕국의 신화 전승 양상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류큐 왕국에서 신화가 향유·전승되던 상황 및 현재 구비전승과의 관련 양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오키나와의 신화 전승 양상을 그 일부나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류큐 왕국의 ‘아마미코’ 신화

본격적 고찰에 앞서 ‘아마미코’라는 명칭에 대해 언급해 두고자 한다. 앞에서 이미 ‘아마미코’라고 제시한 신격은 자료에 따라 ‘아만츄’, ‘아마미쿠’, ‘아마미코’, ‘아마미즈’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오키나와 말⁴⁾의 음운 법칙 등을 고려해 볼 때 모두 같은 신격을 가리키는

2)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에서 오키나와의 미야코지마의 신화 한 편이 소개된 이후,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은 류큐의 신화와 서사시 여러 편을 국내 학계에 소개하고 그 의의를 평가했다. 박종성, 「한국 창세신화와 일본신화」,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는 앞의 김현선의 자료를 대상으로 삼아 창세서사시 전개 양상을 추론했고, 김현선은 「韓國과 琉球의 創世神話 比較 研究」, 『고전문학연구』21, 2002 및 「제주와 유구의 무조신화 비교 연구」, 『구비문학연구』16, 2003 등을 통해 오키나와의 신화를 소개하고 보다 구체적인 지점에서 한국 신화와의 비교 연구를 수행했다.

3) 이러한 오류는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이후 그 자료를 대상으로 한 김현선과 박종성의 앞의 글에서도 반복되었다. 김현선이 최초로 소개한 오키나와의 신화는 미야코지마 ‘하리미즈 우타키(漲水御嶽)’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미야코의 대표적 창세 신화로서 일본 및 오키나와 학계에서 널리 인용되고 거론되는 자료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자료의 소개가 학문적 엄밀성이 요구되는 학술서나 학술 논문이 아니라, 팸플릿 형태로 제작된 『伊波普猷全集』의 月報이고 보면, ‘창세’와 관련되는 다른 자료들을 제쳐두고 하필 이 자료를 대표적 자료로 삼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4) 오키나와의 언어는 일본의 언어와 다르다. 일본 표준어 교육을 받지 않은 오키나와 노인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인 연구자조차 통역을 대동해야 한다. 또, 오키나와 언어는 오키나와 내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이름으로 보고 있다. 오키나와의 옛 문헌에 등장하는 어휘들을 집대성한 『沖繩古語大辭典』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명칭들을 ‘아마미코(あまみこ: あまみ子)’라는 표제어 아래 설명하고 있다.⁵⁾ 여기에서는 그 예를 따라 ‘아마미코’라는 이름을 대표적으로 쓴다는 사실을 밝혀 둔다.

먼저, 류큐 왕조 때의 자료를 근거로 당대 ‘아마미코’의 신화적 형상을 살펴보자.

<1> 『오모로소시』

오키나와의 옛 문헌 중 ‘아마미코’가 등장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은 17세기 초에 간행된 『오모로소시 おもろさうし』이다. ‘소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오모로’라는 노래를 모아놓은 책이다. 이 책에 실린 ‘오모로’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제기되어 있는데, 류큐 왕국의 국가적 의례에서 구연된 儀式謠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모로소시』의 마지막 권인 제 22권은 단 한 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권에서 발췌한 것이다. 제22권은 근세기 류큐 조정의 의식에서 불려졌던 ‘오모로’를 의례별로 정리한 것인바⁶⁾, 최소한 22권에 실린 ‘오모로’는 류큐 왕국의 국가 의례에서 구연된 의식요라고 보는 데 무리가 없다. 이 22권에 실린 ‘오모로’ 중에서 ‘아마미코’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원래 제10권의 두 번째 수로 실려있던 ‘오모로’이다. 『오모로소시』 제 10권의 두 번째 수를 보자.

一	むかし、はちまりや	옛날 태고 적에
	てたこ、大ぬしや	태양의 大神이여
	きよらや、てりよわれ	아름답게 비추소서
又	せのみ、はちまりに	옛날 태고 적에
又	てだ、いちろくが	日神 이치로쿠가
又	てだ、はちろくが	일신 하치로쿠가
又	おさん、しちへ、みおれは	下界를 멀리 내려다보고는
又	さよこ、しちへ、みおれは	멀리 바라보고는
又	あまみきよは、よせわちへ	아마미쿄를 가까이 불러서
又	しねりきよは、よせわちへ	시네리쿄를 가까이 불러서
又	しまつくれ、てゝわちへ	섬을 만들라 하시다
又	くにつくれ、てゝわちへ	나라를 만들라 하시다
又	こゝらきの、しましま	많은 섬들
又	こゝらきの、くにくに	많은 나라들
又	しまつくる、ぎやめも	섬이 완성되는 것도
又	くにつくら、ぎやめも	나라가 완성되는 것도
又	てたこ、うらきれて	日神은 기다리다 지쳐
又	せのみ、うらきれて	日神은 기다리다 지쳐
又	あまみや、すぢや、なすな	아마미야 사람을 낚는구나
又	しねりや、すぢや、なすな	시네리야 사람을 낚는구나
又	しやりば、すぢや、なしよわれ	그렇다면 (그 혈통의) 사람을 낚으소서 ⁷⁾

있어서, 심한 경우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5) 『沖繩古語大辭典』編集委員会, 『沖繩古語大辭典』, 角川書店, 1995, 本篇p.38.

6) 玉城政美, 「おもろ・神話・儀礼の旅—知念・玉城 巡見」, (巡見資料) 2004, p.2.

7) 원문 해석은 이케미야 마사하루(池宮正治), 『琉球文学論』, 沖繩タイムズ社, 1976, pp.93-124의 예를 따랐다.

2행과 3행은 반복적인 미사여구로 실제로는 매 행마다 노래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반복구 및 마지막 행을 제외하면, 앞에서부터 매 두 행이 동일 내용의 대구적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구적 반복구가 이어지다가 마지막은 한 행의 기원으로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히라가나로 기록된 원문의 언어는 류큐 왕국의 수도였던 슈리(首里) 지역어의 古語로 알려져 있다. 오모로를 현대어로 번역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그 때문인데, 위의 오모로 역시 논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번역하기도 한다. 日神의 명령으로 ‘아마미코’가 공간을 창조했음은 대부분의 번역에서 공통적인데,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마지막 3행의 해석이다.

먼저 ‘아마미야(あまみや)’라는 단어를 보자. 『沖繩古語大辭典』에 따르면 ‘아마미야’는 ‘아득히 먼 옛날’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원래는 ‘아마미코가 있던 곳, 머나먼 곳’이라는 의미로, 그것이 발전하여 그러한 시간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⁸⁾ ‘스치야(すちや)’는 이하 후유 등에 의해 ‘수드라’나 ‘중생’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어 왔으나, 다른 오모로의 용례를 찾아보면 ‘신하’ 혹은 ‘神女’ 등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있어 ‘일반 백성’이나 일반 명사 ‘사람’이라기보다는 높은 지위나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⁹⁾

‘나스나(なすな)’는 특히 그 어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다. 종래에는 ‘무엇무엇하지 마라’라는 부정 명령의 뜻을 지닌 ‘나(な)’로 해석되기도 했는데, 앞서 인용한 이케미야의 견해를 따르면 ‘나스나(なすな)’ 끝의 ‘나(な)’는 류큐어에서 ‘어떤 행위가 수행될 것을 기대하면서 가볍게 상대의 동의를 구하며 그러려니 여기’는 의미가 있는 종조사이다. 이 어역은 이 ‘오모로’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타당성을 더한다. 또, ‘나스(なす)’는 ‘낳다(産)’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루다, 만들다(爲)’의 뜻으로도 볼 수 있다.

마지막 세 행의 바로 앞 부분은 日神이 ‘아마미코’가 섬과 나라-즉, 류큐라는 지상 공간-를 만드는 것을 오래 기다렸다는 내용이므로, ‘아마미야 스치야 나스나’는 오랜 기다림 끝에 日神이 ‘아마미코’를 향해 하는 말이다. 그 말 뜻은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아마미야 貴人을 낳는구나?’, ‘아마미야 貴人을 만드는구나?’ 정도의 설의적 문장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문장에는 류큐를 만든 ‘아마미코’가 ‘아마미야’라는 신성한 공간과 연관되는 ‘貴人’을 자신이 만든 지상 공간에 출현시켰다는 신화적 서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¹⁰⁾

요컨대 위의 ‘오모로’는 日神의 명령으로 류큐라는 지상 공간을 만든 ‘아마미코’에 의해 신성 공간에 맥이 닿는 류큐 왕국의 ‘貴人’들이 지상에 출현했다는 내용의 서사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모로’가 류큐 왕권을 강화하는 의례에서 구연된 노래라는 견해¹¹⁾를 따른다면, 그 ‘귀인’들은 류큐 왕국의 왕족과 같은 지배 계급을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위의 ‘오모로’는 최고 권위의 日神과 그 日神의 명령을 받은 ‘아마미코’, ‘아마미코’에 의해 만들어진 류큐와 그 지배계급이 서로 이어지는 유래를 설명하는 신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貴人을 이루소서’라는 마지막 행은 그러한 신화를 근거로 하여, 그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귀인’, 즉 류큐 왕권이 잘 지속되기를 바라는 기원으로 노래를 끝맺고 있다고 하겠다.

8) 『沖繩古語大辭典』編集委員會, 위의 책, 本篇p.39.

9) 이상의 내용은 이케미야, 위의 글 참조.

10) 다만 그 ‘귀인’의 출현이 ‘아마미코’의 ‘출산’에 의한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11) 末次智, 『琉球の王權と神話—『おもろさうし』の研究』, 第一書房, 1995 참조.

<2> 『中山世鑑』

『中山世鑑』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류큐 최초의 正史로 잘 알려져 있는 문헌이다. 그 서두에 실려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화는 류큐의 ‘開闢神話’로 일찍부터 주목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다.

옛날, 天城에 아마미쿠(阿摩美久)라는 신이 있었다. 天帝가 그를 불러 ‘이 아래 신이 살만한 영험한 곳이 있는데 아직 섬이 만들어지지 않아 아쉽다. 내가 내려가 섬을 만들라’고 하였다. 아마미쿠가 황송하여 내려와 보니, 영지(靈地)로는 보이지만 동해 물결은 서해로 넘실대고 서해 물결은 동해로 넘실대어 아직 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아마미쿠는 하늘에 올라가 ‘토석초목(土石草木)을 주신다면 섬을 만들어 바치겠나이다’하고 아뢰었다. 천제가 토석초목을 주자 아마미쿠는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 섬들을 만들었다. (….) 수만 년이 지나도 사람이 없자, 신의 위엄은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싶어 아마미쿠는 또 하늘에 올라가 사람의 씨앗을 간구했다. 천제는 ‘네가 알다시피 하늘에 신이 많다고는 해도 내려보낼 만한 신은 없다’고 말했으나,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천제의 아들딸을 내려주었다. 두 사람은 음양화합은 없었으나 거처가 나란했던 까닭에 왕래하는 바람을 연으로 해서 여인이 임신했고, 마침내 3남 2녀를 낳았다. (….)아마미쿠가 하늘에 올라가 오곡 종자를 받아와 보리와 조, 콩, 기장 씨앗을 처음으로 쿠다카지마에 심었다. 벼는 치넨의 大川 및 다마구스쿠의 오케미조에 심었다.(….)¹²⁾

여기에서 ‘아마미코’는 세 가지 행위와 관련된다. 天帝의 명을 받아 오키나와의 여러 섬들을 만들었고, 이 세상에 인간이 출현할 수 있도록 천제에게 간청했으며, 하늘에서 오곡 종자를 가져와 지상에 심었다.

앞서 본 ‘오모로’에 내포된 서사와 비교해 보면 日神이나 天帝로 구체화되는 천상의 권위자의 명령으로 오키나와를 만들었다는 점이 공통된다. 『中山世鑑』에서는 지상에 天帝의 자손들이 변성할 수 있는 계기를 ‘아마미코’가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의 ‘오모로’에서 문제가 되었던 마지막 3행과 연결되면서도 그 내용이 보다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모로’와 구분되는 『중산세감』의 ‘아마미코’ 신화의 특징은 ‘오모로’에는 없었던 ‘아마미코’의 穀神이나 農神적 면모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늘에서 오곡을 가져와 지상에 심었다는 것은 지상의 곡물이 존재하게 된 유래를 설명하는 곡물 기원 신화이면서 그것의 경작과도 관련되는 농경 기원 신화이기도 하다.

<3> 『中山世譜(蔡溫本)』

『중산세감』과 약 70여 년의 편차를 두고 간행된 류큐 史書인 『中山世譜(蔡溫本)』에도 ‘아마미코’와 관련된 기록이 있다.

(….)우리 나라의 개벽 초에는 파도가 범람하여 살 곳이 못 되었다. 그 때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생겨났다. 남자의 이름은 시니레쿠(志仁禮久), 여자의 이름은 아마미코(阿摩彌姑)였다. 土石을 옮기고 초목을 심어 파도를 막아, 우타키가 생겨났다. 우타키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인물이 번성하였

12) 원문은 한자와 가타가나가 혼용된 일본식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 이 때 다시 한 사람이 나타나 무리를 나누고 백성의 거처를 정하니, 天帝子라 불렀다. 천제자는 3남 2녀를 낳았다. (...) 보리, 조, 기장이 저절로 구다카지마에 나고, 벼 모종이 치넨 다마구스쿠에 나서,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종자를 가는 법을 가르쳐 농사가 일어났다.¹³⁾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이 기록에서는 ‘아마미코’가 ‘시니레쿠’라는男神의 대우신인女神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또, 앞의 기록에서 ‘아마미코’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격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토석초목으로 파도를 막았다는 표현이 ‘섬(시마)’ 만들기와 관련되었던 ‘오모로’나 『중산세감』과는 달리, ‘우타키’¹⁴⁾의 생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중산세보』의 기록은 위에서 살핀 인류기원 화소나 농경기원 화소가 언급되어 있지만,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다시피 ‘아마미코’는 그 어느 것에도 관련되어 있지 않다. 위에서 살핀 두 문헌과 비교할 때, ‘아마미코’는 ‘시니레쿠’와 함께 지상에 태어나 ‘우타키’를 만든 것으로 그 역할과 위상이 축소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4> 『琉球國由來記』

류큐 왕국의 대표적 地誌인 『琉球國由來記』는 왕조의 의례 및 왕국 내부 각 지방의 의례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여기에서도 ‘아마미코’와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가) 제1권 35항

阿摩美久가 하늘에 올라가 오곡 종자를 내려주기를 간청하여 보리, 조, 콩, 기장 몇 종은 구다카지마에 처음 심고, 지넨·다마구스쿠에 벼를 심었다. 이로 인하여 聖上이 구다카지마에 친히 行幸하여 제례한다. 또 봄여름 네 제의도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자세한 것은 『중산세감』에 보인다.

(나) 제13권 392항

稻米시료마 때 다마구스쿠에 行幸하는 유래이다. 上古에 阿摩美久가 기라이카나이에서 벼 종자를 가져와 다마구스쿠 마기리 百名 사람들에게 짓는 법을 가르쳐서 (...) 이에 근거하여 行幸 때에 그 밭 (인용자:阿摩美久가 처음 밭씨를 뿌리고 모심기를 한 곳)의 벼이삭과 기장을 현상하여 바친다.

(가)는 류큐 국왕이 수도 슈리(首里)를 떠나 남부의 지넨(知念)과 구다카지마(久高島)에 行幸하여 집전하던 의례와 관련된다. 현재 오키나와에서는 稻作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류큐 왕국 때 국가의 가장 중요한 농업은 다름아닌 벼농사였다. 한 해의 농사가 무탈하게 잘 이루어져서 풍요로운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의례를 국왕이 직접 수행했던 것이다.¹⁵⁾ (나)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의 의례인 ‘稻米시료마’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에는 오곡 경작의 기원과 관련되는 의례 전반이 설명되어 있는 데 비해, (나)에는 그 중에서도 특

13) 원문은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14) ‘우타키’는 오키나와의 전통적 신앙의 聖所이다. 제주도의 神堂과 유사하다.

15) 그런데, 국왕의 구다카지마 행행은 사츠마 침입 이후 이루어진 하네지 초슈(羽地朝秀)의 개혁을 계기로 중단된다. 국왕의 使者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이러한 의례의 변이의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히 벼농사의 시작과 관련된 의례가 집중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위의 두 의례는 모두 ‘아마미코’가 ‘하늘’에서¹⁶⁾ 곡식의 종자를 가져와 류큐에 심었다는 신화적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이 의례를 참고하면, 농경 기원과 관련하여 서로 어긋나는 신화적 인식을 보여주는 『중산세감』과 『중산세보』 중에서 『중산세감』 쪽이 류큐 왕조의 보편적 신화상을 그려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 현대 구비전승의 ‘아마미코’

위에서 살핀 ‘오모로’ 및 국가 주도의 관찬서에 기록된 ‘아마미코’의 형상은 과거 오키나와에서 ‘아마미코’가 어떻게 인식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오모로’가 구연되었던 의례나 『琉球國由來記』의 농경 의례가 모두 王朝와 관련되었음을 생각한다면, 위에서 살핀 ‘아마미코’의 형상은 단순한 ‘과거’의 신화적 형상이 아니라 ‘과거’ 류큐 ‘왕조’에서 공인되었던 신화적 형상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류큐 왕국 시절의 ‘아마미코’ 신화의 전모를 파악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현재 구비전승되고 있는 ‘아마미코’ 관련 의례 및 설화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비전승문예의 속성상, 그것은 현재의 산물이면서 적층되어온 과거의 퇴적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의 전승물에서는 현재 구비전승집단에서 ‘아마미코’가 형상화되는 양상 뿐만 아니라 과거 구비전승집단에서의 모습을 엿볼 수도 있는 것이다. 문헌 기록에서 간취할 수 없었던 구비전승집단에서의 ‘아마미코’의 형상을 현재의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면, 오키나와라는 공간 속에서 ‘아마미코’의 형상이 지속되고 변천해 온 양상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에 따라, 현재 구비전승되는 ‘아마미코’의 형상을 유형별로 살펴보자.

(1) 공간 창조

<1> 구다카지마의 ‘칸자나시’ 의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구다카지마는 오키나와 本島 동해상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 오키나와에서는 현재까지도 그 곳을 ‘신들의 섬’이라고 할 정도로 그 신성성이 인지되고 있다. 예컨대 그 곳에 사는 여인들은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며, 신성한 그 곳에서는 해안가의 돌하나, 모래 한 줌도 외부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다.

구다카지마에서는 음력 4월과 9월에 ‘칸자나시’라는 이름의 의례가 거행된다. 신들이 ‘나라이 카나이’라는 신들의 공간에서 구다카지마로 와서 섬을 정화하고 마을의 평안과 번영을 축복하는 한편, 해상 안전을 기원하고 바다에서 유명을 달리한 자들의 망혼을 구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의례이다. 의례의 절차를 보면 主神 ‘아가리우푸누시(東大神)’의 명령으로 ‘아마야’라는 신이 길다란 봉(棒)을 가지고 신들의 행렬에 끼어드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티루루’라는 儀式謠를 통해 언어화된다.

‘티루루’의 내용에 따르면, 아마야는 ‘봉을 세워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신격으로 나타난다. 구다카지마의 구비설화 전승에서는 아마야가 길다란 봉으로 바다의 깊이를

16) (나)에서는 아마미쿠가 ‘기라이 카나이’에서 범썩을 가져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기라이 카나이’는 흔히 ‘나라이 카나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키나와의 전통 사상에서 신들과 죽은 조상들이 머무른다고 여기는 신성 공간이다. 바다 멀리 수평적 공간으로 인식되지만, 지상과 다른 신성한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가)에서의 ‘하늘’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가늠해 가면서 구다카지마를 만들었다거나, 봉을 세워 구다카지마를 만들었다거나, 아마야가 섬을 다 만들고 나서 앉아서 쉰 돌이 남아있다거나 하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설화로 의식요의 빈 틈을 메꾸어보면, 구다카지마에서 아마야는 구다카지마를 처음 만든 창조신이고 그 창조행위는 앞서 살핀 문헌에서와 유사하게 파도가 넘나드는 바다 위에 섬을 만드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섬만들기(시마즈쿠리 島作り)’ 설화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것과, 혼란스러운 有의 상태를 정돈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 섬을 만드는 것과, 물결이 넘나드는 섬을 파도로부터 막거나 바다 위를 流動하는 섬을 고정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 인간사가 펼쳐지는 지상의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의 구비설화는 ‘아마미코’의 ‘창조’ 행위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아마미쿠와 시누미쿠가 시마즈쿠리를 하려는데, 섬은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고 그 위로 파도가 넘나들고 있었다. 아마쿠와 시누미쿠는 말뚝을 박아 섬을 고정시켜 시마즈쿠리를 끝내고, 섬 곳곳에 나무를 심고 해안에 돌을 두었다.

위 예화는 ‘아마미코’가 ‘시누미쿠’와 짝을 이루는 대우신으로 등장한다는 점, 유동하는 섬을 고정시키고 나무를 심어 파도를 막아 공간을 정비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한편, 오키나와 본도에는 다음과 같은 설화 전승이 광포적으로 존재한다.

<3> 거인의 천지분리

현재 오키나와에는 ‘거인 아만츄’에 관한 설화가 적지 않게 전승된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옛날에는 하늘과 땅이 붙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어다닐 수밖에 없었다. 서서 다니지 않으면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 하강해 왔는지 ‘아만츄’라는 이가 나하(那覇)의 ‘유치노사키’라는 곳에 서서 하늘을 들어올렸다. 그 후 사람들은 서서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고, 먹을 것을 구해서 먹을 수도 있게 되었다. 그 사람의 발자국은 아직도 ‘유치사키’에 남아 있다.¹⁷⁾

여기에서 ‘아만츄’는 ‘아마미코’의 다른 이름이다. 이 설화는 ‘아마미코’를 ‘거인’이라고 형상화함과 동시에, 그가 그 큰 키를 이용하여 ‘천지분리’라는 행위를 수행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천지분리’는 여타의 천지창조 신화에서 ‘창조’와 관련되는 화소인바, 여기서의 ‘아마미코’ 역시 ‘창조’라는 신화적 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유형의 설화를 ‘창조신화’로 단언하기는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이 유형의 설화는 많은 경우 ‘가뭇물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못이 있는데 그것은 거인 아만츄의 발자국이다’라거나 ‘아만츄는 키가 매우 커서 멀리 떨어진 두 지역에 동시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는 유화로 나타나는바, 이들 각편들을 두루 고려할 때 위 유형의 설화는 ‘아마미코’의 ‘창조’ 행위보

17) 福田晃·遠藤庄治·山下欣一, 『日本伝説大系』15, みずうみ書房, 1989, p.25.

다는 그의 ‘거인’이라는 특성에 방점이 놓인 이야기로 보이기 때문이다. ‘거인 아마미코’의 행위로 ‘천지분리’라는 유사 창조가 형상화되는 예로 들 수 있다.

(2) 오곡 및 농경 기원

오늘날 오키나와는 벼농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각 마을의 풍요 기원제 성격의 의례에서는 稻作이 생산의 대표적 예로 전제되고 있다. 류큐 왕국 때의 稻作과 관련된 의례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타당하리라 본다. 그런데, 이러한 의례에서 ‘아마미코’가 논을 만들고 벼씨를 뿌렸다는 내용이 의식요에 포함되어 있는 예가 적지 않다.¹⁸⁾

구비설화에서도 ‘아마미코’의 이러한 형상이 드러나는 예를 찾을 수 있다.

오곡은 아마미코 시네리코가 가져왔다. 아마미코가 표주박 안에 보리, 조, 콩, 아다카, 쌀을 넣어 흘려보내니 그것이 이시킴마(伊敷浜)에 와 닿았다. 아카츄미 신이 그것을 잡으려 했으나 잡히지가 않아서, 야구루가에서 몸을 정결히 하니 (비로소) 잡을 수 있었다. 보리, 조, 콩 등은 하타슈바루에 심었으나, 벼는 하쿠나(百名)의 우킨쥬 하인쥬에 가서 심었다.¹⁹⁾

위 유형의 설화는 주로 구다카지마에서 채록된다. 여기에서 ‘아마미코’는 향아리에 오곡 종자를 넣어 구다카지마로 보낸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여기서는 ‘아마미코’가 오곡을 전해주는 하지만 그것을 심고 가꾸는 농경의 기원자로서의 역할은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3) 인류 시조

‘아마미코’가 인류 시조로 형상화되는 구비설화의 예도 찾아볼 수 있다.

(가) 운텐에 아마미즈, 아마미-쿠 두 명이 살면서 조개와 고기를 먹고 자랐다. 달 밝은 밤 아마미즈가 ‘토토메 가나시, 커다란 떡을 하나 주십시오’라고 하자 떡이 떨어져서 그것을 먹었다. 두 사람은 번영할 곳이라 해서 구다카에 살았는데, 이것이 오키나와의 시작이다.²⁰⁾

(나)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아마미쥬 부부가 있었다. 메뚜기의 교미를 보고 부부 관계를 알게 되니 자식들이 태어났다.²¹⁾

여기에서는 ‘아마미코’가 남녀 對偶神으로 등장하는데, 이들에 의해 인류가 생겨난다. 인류의 생식이란 남녀 한 쌍을 전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마미코’가 남녀로 등장하는 원인이 아닌가 한다. 여하튼, ‘아마미코’가 인류의 시조가 되는 최초의 남녀로 나타나고 있다.

18) 야마시타 킨이치(山下欣一), 『南島民間神話の研究』, 第一書房, 2003, p. 94의 표 참조.

19) 福田晃·遠藤庄治·山下欣一, 위의 책, p. 128.

20) 稻田浩二·小澤俊夫 編, 『日本昔話通觀』26, 同朋舎, 1983, p. 131.

21) 遠藤庄治 編, 『勝連の民話-上卷 離島篇』, 勝連町教育委員会, 1990, p.394.

그런데, ‘아마미코’가 등장하는 이 유형의 설화는 최초의 남녀에 의한 인류의 기원을 말하는 구비설화에 ‘아마미코’라는 이름만이 덧붙여진 것이 아닌가 한다. 오키나와의 대표적인 인류 시조 신화로 일찍이 伊波普猷가 소개하여 유명해진 고우리지마(古宇利島) 시조 신화²²⁾를 들 수 있다. 대강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

옛날 옛날, 고우리지마에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가 출현했다. 두 아이는 별거벗고 지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 채,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으며 살았다. 그러다가 먹고 남은 떡을 저장하기 시작하자,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던 것이 중단되고 말았다. 두 사람은 그 때부터 노동을 하며 먹고 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해마(海馬)가 교미하는 것을 보고 남녀 교합의 방법을 알게 되었다. 나체의 부끄러움을 알게 된 두 사람은 구바 앞으로 음부를 가렸다. 오늘날 오키나와 서른 여섯 섬의 주민들은 이들의 후손이다.

현재까지 채록되어 있는 유화(類話)들을 참고하면 이 유형의 이야기는 ‘지상에 출현한 최초의 남녀가 동물이나 새, 곤충으로부터 교미하는 법을 보고 배워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교집합으로 한다.²³⁾ 설화 채록집을 살펴보면, 이 유형의 인류 기원 설화는 오키나와 본도뿐만 아니라 미야코 지역에서도 발견되는 광포 설화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광포적 설화 각편 가운데 주인공이 ‘아마미코’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아마미코’가 남녀 대우신으로 설정된다는 점, ‘아마미코’ 남녀에 의한 인류 기원이라는 설화적 인식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점은 ‘아마미코’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류 시조 설화가 보편적인 설화적 인식에 기대고 있지 않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요컨대, ‘아마미코’가 인류 시조로 등장하는 구비 전승은 인류 기원에 관한 보편적인 오키나와의 설화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마미코’라는 이름이 덧붙여졌기 때문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4. 류큐 신화의 지속과 변천

㉠류큐 왕조의 문헌과 의례에 나타난 ‘아마미코’ 형상을 다시 떠올려 보자. 여러 기록에 나타났던 ‘아마미코’의 공통적 특질은 그가 공간 창조주인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구비 전승물에서도 ‘아마미코’의 이러한 특성은 견지된다. 특히 ‘아마미코’가 ‘거인’임을 강조하는 설화에서도 그의 행위가 ‘천지분리’라는 창조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아마미코’에 대한 구비 전승의 인식의 기저에 그를 ‘창조’의 주체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오키나와 본도의 남부 지방에 위치한 다마구스쿠(玉城)에서 전해지는 설화를 보자. ‘해일이 일어 마을이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하자, 아만츄는 자기 몸을 눕혀 해일을 막았다. 그때의 갈비뼈 자국이 마을 해안에 남아 있다’는 내용의 이 설화에서 ‘아마미코’가 해일을 몸으로 막을 만큼의 ‘거인’으로 형상화되는데 그의 행위가 ‘해일막기’로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일막기’는 넘나드는 파도를 막아 오키나와라는 공간을 창조한 창조신 ‘아마미코’의 행위를 연상시킨다. 해일을 막아 마을이 바닷물에 잠기는 것을 막은 ‘아마미코’

22) 伊波普猷(外間守善 校訂), 『古琉球』, 岩波書店, 2000, pp. 391-392. 「琉球の神話」라는 제목의 이 글은 1904년에 처음 발표되었다.

23) 최초의 남녀는 하늘에서 내려온 남녀(혹은 남매), 전란이나 표류에서 살아남은 남녀(혹은 남매) 등으로 나타난다. 福田晃·遠藤庄治·山下欣一, 위의 책 참조.

의 행위는 그러한 창조 화소의 변이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해일을 막는 ‘아마미코’의 役事가 신의 창조 행위로 제시되는 류큐 왕조의 문헌 기록과 달리 여기에서는 자신의 신체적 특성을 이용한 거인의 영웅적 행위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그 행위가 ‘해일막기’라는 창조 화소가 반복·변형되어 나타난다는 것은 ‘아마미코’와 ‘창조’를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설화적 의식의 투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아마미코’를 신 아닌 거인으로 형상화하는 오늘날의 설화에서도 그를 ‘창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로 간주하는 설화적 인식이 간취된다면, ‘창조신 아마미쿠’라는 인식은 류큐 왕국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 류큐 왕조의 문헌에서 ‘아마미코’의 ‘창조’적 행위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오모로’에서는 日神의 명령에 의해 無에서 有를 창조하며, 『중산세감』에서는 천제의 명에 의해 섬을 고정시키는 것으로, 『중산세보』에서는 ‘日神’이나 ‘天帝’와 같은 신성한 권위와 상관없이 흔들리는 섬을 고정시킨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창조 행위의 신성성 정도로 가늠한다면, ‘아마미코’의 창조 행위는 ‘오모로’에서 가장 신성한 역사로 드러나고 『중산세보』에서 가장 평범해진다. 『중산세보』의 창조 행위는 ‘일신’이나 ‘천제’와 같은 절대적 신성 권위의 후원에 의한 창조 행위도 아니고, 섬을 고정시킨 주체 역시 ‘하늘’이라는 신성 공간을 出自로 하는 인물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중산세보』의 이러한 신성성 약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선, 『중산세보』가 어떤 史書인지 검토해 보자. 『중산세보』가 한문으로 기록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중국을 다분히 의식하여 편찬된 책이다. 이전의 『중산세감』은 일본 사츠마의 간접 지배 아래에 편입된 류큐 왕조의 입장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편찬 배후에 있었다면, 『중산세보』의 배후에는 일본 사츠마의 존재를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 중국과도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류큐 왕조의 입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중산세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산세보』를 다시 편찬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天’의 부재는, 『중산세보』의 이러한 편찬 의도와 관련되는 것이 아닐까? 본고에서 다룬 『채운본 중산세보』 이전에 나온 『蔡鐸本 중산세보』에서는 아예 ‘아마미코’의 존재가 지워지고 음과 양의 움직임에 의한 만물의 창조가 그려진다. 이러한 상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나마 『채운본 중산세보』는 『채탁본 중산세보』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아마미쿠의 창조’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체적 서술이라는 측면에서는 진일보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채탁본 중산세보』에서는 지워졌던 ‘아마미코’의 창조 행위가 『채운본 중산세보』에서는 다시 되살아난 데에서, ‘창조의 신 아마미코’라는 관념이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② 『중산세감』과 『琉球國由來記』의 기록을 보면 류큐 왕국에서는 ‘아마미코’를 도작 기원의 신화적 인물로 설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류큐 왕조 때의 의례에서 지속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현재의 민간 풍요 의례에서 ‘아마미코’가 도작 기원의 주체로 설정되고 있는 것을 보면, 도작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인식이 확인되고 공고해졌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도작 기원의 주체로 ‘아마미코’를 인식하는 이러한 의례는 왕조가 주도하는 국가적 의례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류큐 왕국이 성립하기 이전, 오키나와 본도는 山北, 中山, 山南의 세 세력이 정립하고 있었다. 결국 中山을 중심으로 세 세력이 통일되어 류큐 왕국이 성립하는 데 이르렀으나, 각 지방을 중세 국가의 위계 질서 안으로 편입시키기까지는 적

지 않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중앙집권적 중세국가로서의 류큐를 확립한 것은 쇼신(尙眞)왕의 업적이었다. 그는 지방 실력자들을 수도 슈리(首里)로 이주시켜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왕조의 통제 하에 두는 한편, 오키나와 전통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각 마을의 의례와 신앙을 왕조를 최상위로 하는 종교적 위계 체제로 조직해 냈다. 왕비나 왕녀를 최고 神女로 삼아 ‘기코에 오오기미(聞得大君)’라는 직위를 주고, 각 마을 공동체의 사제자인 ‘노로’들을 ‘기코에 오오기미’의 관리 하에 두었다. 새로이 등장한 추상적 정치 체제인 류큐 왕조는 마을 공동체 의례를 국가가 주관하는 의례 조직 속에 편입시킴으로써 기존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지는 않으면서 그것을 제어하는 ‘국가’의 존재를 각인시킴으로써 새로이 등장한 왕조의 권위를 자연스럽게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각 마을의 도작 의례에서 ‘아마미코’가 도작 기원자로 설정되는 것은 류큐 왕조에서 도작 기원지로 설정하여 성소로 삼은 지넨 다마구스쿠의 우킨쥬·하인쥬와 관련되는 신화, 즉 ‘아마미코’와 관련되는 왕조 신화²⁴⁾가 국가적 의례 조직을 통해 지방으로 확대되어 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각 지방의 농경의 풍요는 왕조 농경의 기원자인 ‘아마미코’의 덕이라는 인식은, 마을의 풍요가 왕조의 신성한 기원에서 기인한다는 인식과 결부됨은 물론이다.

‘아마미코’에 의한 도작 기원이 국가적 의례에서 형성되고 추인되었으리라는 추정은 이와 다른 계열의 곡물이나 농경 기원, 특히 도작 기원과 관련되는 구비 설화가 현재 구비전승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옛날, 神이 새들을 모두 모아놓고 ‘오키나와에는 벼가 없으니 어디에 가서든 물어오라’고 명했다.(…) 수리(鷺)가 선발되어 벼를 물어오는 데 성공했으나, 우킨쥬 하인쥬에서 힘이 다해 죽어버렸다. 오키나와의 稻作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²⁵⁾

이와 같이 ‘새가 벼이삭을 물어온 것을 계기로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의 설화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아마미코’에 의한 벼농사의 기원이 의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른 계열의 전승이 적지않게 발견되는 것은, 왕조가 주도하는 의례의 바깥에서 도작의 기원에 관한 신화가 새로이 형성되었거나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 현재에 이르렀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어떻게 추정하든 중요한 것은 국가 주도의 의례 바깥에 그와는 계열을 달리하는 전승이 있어왔다는 것이고, 이는 ‘아마미코’와 관련되는 도작 기원, 폭넓게는 곡물과 농경의 기원이 왕조 신화로서 의례를 통해 확대되고 지속되어 온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라 본다.

한편, 앞서 본 『중산세보』에서 곡물은 자연적으로 化生한 것이었다. 음과 양의 조화에 의해 만물이 화생하는 중국문화적 관념에서 기인된 왕조 신화의 변이형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하지만 天帝子가 나타나 사람들에게 농경을 가르쳤고 그 후손이 왕조의 지배 계층을 이루었다고 함으로써 농경의 풍요가 왕조의 성립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은, 『중산세보』에서도 역시 농경과 왕조 권력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24) 앞에서 살폈듯 구다카지마에서는 ‘아마미코’와 관련된 곡물 기원 설화가 전해진다. 도작 기원자로서의 ‘아마미코’ 왕조 신화의 연원이 민간의 설화나 신화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5) 福田晃·遠藤庄治·山下欣一, 위의 책, p.126.

③ 『중산세감』에서 ‘아마미코’는 류큐에 인류가 번성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오모로’에서 ‘아마미코’는 류큐 왕조의 지배층이 ‘아마미야’라는 신성 공간에 연원을 두고 있음을 증명한다. 『중산세보』에서 류큐의 인물 번성은 ‘아마미코’와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류큐 왕조의 각 지배계급의 시조들의 기원이 ‘天帝子’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아마미코’가 인류의 시조와는 그다지 관련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기실 류큐 왕조의 이러한 기록들은 류큐 지배 계급의 신성한 기원을 강조하는 이야기이지, ‘아마미코’에 의한 인류 시조의 이야기가 아니다.²⁶⁾

위에서 살핀 구비전승의 예에서 보았듯, 오키나와의 여러 마을에는 마을 공동체의 시조로 ‘최초의 남녀’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오키나와의 인류 시조 신화는 이러한 유형의 설화에서 찾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아마미코’를 류큐의 인류 기원자로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은 일찍이 16세기 초에 일본 승려 다이쥬(袋中)가 쓴 『琉球神道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인즉슨, ‘하늘에서 내려온 시네리큐와 아마미큐가 낳은 세 아이가 류큐의 왕, 노로, 土民의 시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아마미코’에 의한 류큐의 인류 기원인 것이다. ‘시네리큐’가 ‘아마미코’의 반복적 대구어(對句語)인 줄 모르고 각각 별개의 신격으로 파악한 것이나, 『琉球神道記』의 저자가 일본의 승려로서 류큐의 전통 종교를 일본의 ‘神道’로 간주하여 기록한 것, 3년 간의 길지 않은 류큐 체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그다지 신뢰할 만한 자료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오늘날 전승되는 자료에서 ‘최초의 남녀’를 ‘아마미코’라는 이름을 가진 남녀로 설정하는 예를 참고할 때 『琉球神道記』의 저자가 류큐에서 구비전승되는 ‘최초의 남녀’ 유형의 인류 기원 설화에 류큐의 개벽신인 ‘아마미코’를 남녀로 오해하고 부회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만일 그가 일본 왕실의 개벽 신화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류큐 왕조의 개벽 신화를 그와 유사한 형태로 곡해하여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라 하여 『琉球神道記』의 기록을 오키나와 신화의 가장 오래된 형태라 보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록의 정황, 이후에 이루어진 문자 기록과 현대 구비전승을 고려하여 자료로서의 신뢰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4. 結

잘 알려져 있듯 창조신화의 핵심은 우주와 인류, 문화의 창조에 있다. 오키나와에는 전승 집단의 생활 터전이 되는 공간, 그들의 시조,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농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각각의 신화가 있다. ‘아마미코’에 의한 ‘시마즈쿠리(島作り)’, ‘최초의 남녀’에 의한 인류의 번성, 저 세상에서 가져온 곡식 종자에 대한 현대의 구비신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신화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류큐 왕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류큐 왕조에 의해 이루어진 기록들을 통해 당시 왕조가 주도하여 형상화하고 추진한 신화의 양상을 확인하고, 당대의 역사적 정황이나 기록의 배경, 현대 구비전승 자료를 참고로 하여 당시 왕조 신화의 定型이나 그 의도를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본고는 오키나와 신화와 한국 신화와의 비교 연구가 그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26) ‘오모로’의 경우에서도 ‘아마미코’는 류큐 왕조의 지배계급의 시조일 수는 있어도 인류의 시조이지는 않다.

창세신화의 동아시아적 전개라든가 화소의 전과 양상 등을 재구하는 식으로 확장되고 추상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아마미코’가 류큐 왕조 및 현대 구비전승에서 어떻게 신화화되었는가를 살피면서, 류큐 왕국 때의 왕조 신화 및 그와 궤를 달리하기도 하고 그 영향 하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현대 구비전승의 여러 양상을 제시하였다. 현재 전승되는 신화 자료의 역사적 맥락이나 전승의 기반이 부분적으로나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오키나와의 신화 자료는 문헌 기록보다는 구비 전승의 자료가 더욱 풍부하다. 이 글에서는 류큐 왕조 신화에서 부각되었던 ‘아마미코’에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구비 전승의 자료보다는 문헌 자료에 방점을 둔 셈이 되었다. 구비의 신화가 전승되는 배경, 여기서 다루지 못한 다른 유형의 신화 등이 후속 논의를 통해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글은 오키나와의 세 문화권-류큐 문화권, 미야코 문화권, 야에야마 문화권- 중에서 미야코와 야에야마의 경우를 전혀 다루지 못했음을 밝혀 둔다. 역시 후속 연구를 기약해 본다.

참고문헌

<자료>

- 『琉球國由來記』(外間守善·波照間永吉 編著, 角川書店, 1997.)
『琉球神道記』(橫山重 編著, 『琉球神道記』, 大岡山書店;東京, 1936)
『中山世鑑』
『中山世譜』(蔡溫本)
『中山世譜』(蔡鐸本)
『おもろさうし(上)』, (外間守善 校注, 岩波書店, 2000.)

<국내서>

- 김헌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pp. 491-495.
김헌선, 「韓國과 琉球의 創世神話 比較 研究」, 『고전문학연구』21, 2002, pp.257-303.
김헌선, 「제주와 유구의 무조신화 비교 연구」, 『구비문학연구』16, 2003, pp.403-448.
박중성, 「한국 창세신화와 일본신화」,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pp.381-397.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국외서>

- 稻田浩二·小澤俊夫 編, 『日本昔話通觀』26, 同朋舎, 1983, p. 131.
末次智, 『琉球の王権と神話—『おもろさうし』の研究』, 第一書房, 1995
福田晃·遠藤庄治·山下欣一, 『日本伝説大系』15, みずうみ書房, 1989, p.25, 128.
山下欣一, 『南島民間神話の研究』, 第一書房, 2003, p. 94.
玉城政美, 「おもろ·神話·儀礼の旅—知念·玉城 巡見」(巡見資料), 2004, p.2.
遠藤庄治 編, 『勝連の民話-上卷 離島篇』, 勝連町教育委員会, 1990, p.394.
伊波普猷(外間守善 校訂), 『古琉球』, 岩波書店, 2000, pp. 391-392.
池宮正治, 『琉球文学論』, 沖縄タイムズ社, 1976, pp.93-124.
沖縄古語大辞典編集委員会, 『沖縄古語大辞典』, 角川書店, 1995, 本篇p.38-39.

abstrac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myths of *Amamiko* in Okinawa. Today, Okinawa is a prefecture of Japan. But it was a kingdom Ryukyu in the past. So, this research is what about the myths of not only Okinawa but also Ryukyu dynasty, that is, the oral traditions of today and the records of the past.

First, I made a survey of the myths of Ryukyu dynasty. In that mythology, *Amamiko* figured out the sacred of creation. The islands of Ryukyu was made by *Amamiko*. *Amamiko* was the riser of rice-farming, too. The rituals of each village organized into the control of Ryukyu dynasty, chanted the *Amamiko* who had brought the first seed rice and started the rice-farming.

Some times, *Amamiko* was related to origin of man, particularly the royalty or ruling class. Ryukyu dynasty stressed that their ancestor came from the Heaven to emphasize their sacred origin and power. But I have to add that this figure of *Amamiko* is not usual one.

We know the myth of origin of man, that is what was introduced by Iha-fuyu, the famous savant of Okinawan studies. We can see many versions in oral traditions of Okinawa like as that a young pair became the common ancestor of human beings. On rare occasions, *Amamiko* is to be the name of that pair. I think that it was caused by the dominated character of *Amamiko*, the sacred of creation. Creation means the creating of universal, culture, and human beings.

In oral traditions of today Okinawa, we can see the origin of rice-farming myth related to not *Amamiko* but bird. In spite of ritual performances chanting the rice-farming riser *Amamiko*, the other different myth has been told in oral traditions. I dare say that the rice-farming riser *Amamiko* was figured and announced by official routes of Ryukyu dynasty.

The past and the present, the literal records and the oral traditions, and the official and the popular, we have to think these aspects and their interaction to understand the myths of Okinawa.

key word: *Okinawa*, *Ryukyu*, *Amamiko*, myth of creation, riser of rice-farming